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이색 캠핑 체험 선보인다

내달 1~3일 콘텐츠 페스티벌 연계 구역 50개소 22일부터 선착순 배정 봉화언덕 '쿠키런' 주제 체험 부스 도넛 교환권·캠핑 키트 등 제공



순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부제:올덴가)'에서 쿠키런과 콜라보한 이색 캠핑존을 선보인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캠핑 장소는 오천그린광장으로 5만평 규모의 푸른 잔디광장 일부를 나만의 캠핑 공간으로 꾸릴 수 있게 된다.

캠핑 공간은 총 50개소로 이뤄져 있으며 4~5인 패밀리존 25개소와 1~2인 커플

존 25개소로 구분된다. 이번 캠핑 체험은 전세계 2억명 이상의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 게임 브랜드 '쿠키런'과 결합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 랜드마크인 정원과 통통 튀는 매력을 지닌 캐릭터가 만났을 때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캠핑존 참여자에게는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과 쿠키런이 콜라보한 한정판 피크닉 매트, 노트도넛 교환권, 전투식량 등 캠핑키트가 제공된다.

또 2박 3일간 캠핑존 참여자만 즐길 수 있는 비화식 쿠키쇼, 버스킹 콘서트, 미니카페, 만화책 대여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됐다.

참가비는 사이트당 3만원이며 QR코드

(<https://naver.me/F1ZmvuZe>)를 스캔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22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캠핑 구역은 선착순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캠핑존을 벗어나면 순천만국가정원의 대표 상징 공간 '봉화언덕'에 앉은 10m 가량의 용감한 쿠키, '쿠키런:모험의 탑' 게임 체험부스 등 오천그린광장에서 쿠키런 A부터 Z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11월 1일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개막식에서 애니메이션 OST와 연계한 캐릭터 드론쇼를 열어 페스티벌의 화려한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서산 어울길 안전 보강 공사 광양시, 내달 중순까지

광양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서산 어울길이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광양시는 11월 중순까지 서산 어울길 무장에 산책로 시설물 안전 보강 공사가 진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미끄럼방지 패드가 설치되지 않은 경사 구간 740m에 패드가 추가 설치되고 조명등 미설치 구간에는 야간등 30개가 설치된다.

광양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서산근린공원 내 맨발길과 가을 꽃단지 인근 무장애 데크길의 보행 안전성이 향상되고 야간 산책 시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양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향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서산 둘레길 산책과 서천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와의 연계성을 높여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송택 공원과장은 "공사 중에도 시민들의 산책로 이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전 시설물을 보강해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에도 누구나 안전하게 산책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도입 고흥군, 인력난 해소 기대

고흥군이 마늘 생산 전 과정 기계화 도입에 나섰다. 기계화를 통해 노동력 80%, 경영비 60%가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풍양농협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임대한 마늘 파종기 및 비닐피복기 등 마늘 기계화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마늘 재배의 전 과정을 기계화해 농촌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마늘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풍양농협은 약 54ha 면적을 기계화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력과 경영비가 관행재배 대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늘 재배에서 중요한 시기인 파종과 수확철에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계화 장비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기계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저소득 중증 신장장애인 지원 여수시, 혈액·복막 투석비 등

여수시는 장기 투석이 필요한 저소득 중증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중증 신장장애인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혈액·복막 투석비는 본인부담액의 50% △이식검사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100만원 △혈관수술비는 2년에 1회, 회당 최대 20만원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진료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비 지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에서 갈대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새마을부녀회, 만성리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

여수시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희)가 해양환경 보호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여수시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회원 35명은 지난 16일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에서 해안가에 떠밀려온 정어리 폐사체와 스티로폼, 갈대 등 각종 해양쓰레

기를 집중 수거했다.

김희숙 만덕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정어리 폐사체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아름다운 해안을 우리

손으로 지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덕동 새마을부녀회는 매주 금요일 만성리 해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하천 및 버스정류장 청결 활동 등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한강을 읽다' 독서 모임 운영

대표작 함께 읽는 기회 마련

광양중앙도서관은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작가의 대표작을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강 작가의 인기가 급상승하며 모든 세대에서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

광양중앙도서관은 '한강 신드롬', '한강의 시대', '한강 없이' 같이 서점가에서 새롭게 관측되고 있는 현상과 #독서 붐, #텍스트 힙(Text Hip), #독서 인증 등 독서를 '힙'하게 여기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색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강을 읽다' 독서 모임은 기존 독서 모임과 차별점을 뒀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사전에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된다. 도서관에 모여 책을 읽은 후 북 멘토와 함께 작품의 역사적 배경, 작가의 문학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모임이 운영된다.

독서 모임의 주제 도서는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 두 작품이다.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한 권 완독하기에 도전하며 각 도서를 4회에 걸쳐 읽게 된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완독한 참여자에게 선정 도서를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소년이 온다 독서 모임 운영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작별하지 않는다 독서 모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독서 모임 각각 광양시민 10명을 모집한다. 하지만 모집 일정에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소년이 온다 독서 모임은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작별하지 않는다 독서 모임은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lib.gwangyang.go.kr)에서 신청 접수하거나 광양중앙도서관에 전화(061-797-3864)로 신청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농가 방치 폐농약 집중 수거 실시

여수시가 관내 농가, 창고 등에 방치된 폐농약을 본격 수거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나

남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 체계 부재로 처리에 애로를 겪었다.

이에 시는 폐농약의 무분별한 방치와 잘못된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농약 집중 수거를 실시

한다.

농가는 농약이 외부로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한 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수거된 폐농약을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중고 물품 거래 벼룩시장 성황 여수시, 물가안정 캠페인 등

10월 '여수 벼룩시장'이 지난 13일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활발한 물품거래와 참가자들의 따뜻한 기부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벼룩시장에 158개 팀 420명이 참여해 2500여 개 중고 물품을 거래했으며 판매 후 남은 물품과 수익금은 참여자들의 자율적 기부로 이어졌다.

전통놀이와 캘리그래피, 재활용품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된 '재외외국인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 참여자들도 벼룩시장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벼룩시장 개장에 앞서 시는 한국부인회 여수시지회 등 소비자단체 20여 명과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해 고물가 시대 속 물가안정 동참을 호소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11월에 개장할 올해의 마지막 벼룩시장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